

“고객들의 박수와 칭찬이 50년 버틴 힘”



‘드맹’ 50주년 맞아 패션쇼·음악회 여는 패션 디자이너 문광자씨

그녀를 만나러 가는 ‘드맹’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에 띄는 장석주의 시 ‘대추 한 알’이었다. ‘저게 저절로 붙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드맹이 패션 하우스일 뿐 아니라, 아트홀을 운영하고 시 관련 강좌도 여는 문화공간임이 떠올라 “참 어울린다” 싶었다.

패션 디자이너 문광자(72)씨가 ‘드맹’이라는 상호를 내 걸고 옷을 만든 지 50년을 맞았다. 1967년 9월23일 작은 디자인스튜디오를 연 게 출발이었다. 바로 그날인 23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오가현에서 ‘드맹 50주년’ 기념 패션쇼가 열린다. 광주에서의 패션쇼는 20여년 만으로 10월에는 드맹아트홀에서 감사 음악회도 열 계획이다.

“이번에 빈티지 자수를 활용한 옷들을 선보입니다. 오랫동안 모아놓은 자수를 빨아 다리고 오리다 보니 절로 50년 세월을 돌아봐지더군요. 어떤 땀 재벌 두시가 넘어가기도 했는데 50년 전, 30년 전 일들, 고객들 얼굴이 생각났어요. 디자이너는 자기 옷을 입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문 씨는 어릴 때부터 꼼지락 꼼지락 옷 만들기를 좋아했다.

“제가 눈썰미가 좋아서요. 어머니가 모아놓은 모시, 삼베 천으로 이것 저것 만들고는 했죠. 동생 원피스도 만들어 입히구요. 어느날 어머니가 “치마가 있는데 잘 안 입어진다”며 내놓으시는데 제 실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좋아라 하며 옷을 만들었죠.”

조선대 의상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서울 국제복장 학원에 들어가 7개월간 오전반과 야간반에서 공부하며 매일 한벌씩 옷을 만들었다. 항상 자신만의 공간을 꿈꿨던 그녀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친 길에 1967년 옛 광주YWCA 공간을 빌려 솜을 열었다. 상호는 패션의 본고장 ‘블랑서’ 말로 ‘내일’을 뜻하는 ‘드맹’으로 정했다. 이후 관광호텔, 충창로 2가 등에서 솜을 운영했던 그녀는 1971년 결혼 후에는 아이들을 키우며 집에서 옷을 만들었다. ‘드맹 안 집’ 시절이다.

그녀가 주부보다는, 디자이너에 방점을 두고 프로 의식을 갖게 된 건 1983년 뉴욕에 다녀온 후다. 발렌티노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면서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그녀는 서울패션협회와 교류도 하고 패션 잡지 ‘뿔’에 소개되기도 했다. 문광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명옷’을 떠올린다.

1967년부터 ‘드맹’ 상호 솜 운영

‘무명옷’ 유명 서울·뉴욕 등 패션쇼

“무명천에는 위엄·카리스마 있어”

드맹 아트홀 꾸려 음악회도 개최



23일 오가현 패션쇼서 선보일 문광자씨 작품.

1992년부터 염색 장인 한광석 선생의 천으로 무명 옷을 만들기 시작한 그녀는 ‘디자이너 문광자의 무명으로 만든 옷’(1, 2)을 펴내고 뉴욕 소호와 하와이, 서울에서 전시회와 패션쇼를 열기도 했다.

“하얀 무명천에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위엄이 있다고 할까요. 사람에 비유하면 가슴이 넓은 진실한 남자, 인간미 넘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통 무명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해요. 불뿔래가 가능하죠. 잘 세탁해 다려 입으면 30~40년 거뜨히 입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무명의 ‘순백’ 그 자체를 살리고 자수와 레이스를 바느질한 의상을 제작한다. 이번 패션쇼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이다. 또 조각보로 만든 옷도 선보인다.

21년 전, 광주 천변에 문을 연 하얀색 건물 ‘드맹’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한동안 광주의 랜드마크였다. ‘드맹’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드맹아트홀’이다. 문씨는 언젠가 개인 건물을 갖다면 꼭 문화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그 꿈을 실현시켰다. 아마하,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갖춘 공연장에서는 클래식 공연이 많이 열렸다.

“음악회가 열릴 때 아트홀에 앉아 있으면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기도 하구요. 작은 공간에서 듣는 음악의 감흥은 큼니다. 스페인산 수작업 의자를 갖춰놓았는데 20년 넘은 지금까지도 어긋난 게 하나도 없어요. 공연 후 예술가와 관객이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카페도 열었죠. 한집 걸러 커피숍인 요즘에도 이 공간을 없애지 않고 두는 이유입니다.”

이번 50주년 기념 행사는 고객들에게도 추억을 남겼다. 잡지 ‘노블리스’는 오랫동안 그녀의 ‘무명옷’을 구입한 수십명의 고객 사진을 촬영, 별책 부록으로 발행한다. 고객들은 4일 동안 의재미술관에서 무명옷을 입고 사진 촬영을 했다. 별책에는 최근 큰 아들 이인수 정신과 전문의와 책 ‘누구의 인정도 아닌’을 펴낸 남편 이무석 전 전남대 교수와 화가로 활동중인 둘째 아들의 축하글도 실린다.

“사람들이 제 옷을 보고 ‘드맹옷 같구만’, ‘드맹 옷이네’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저만의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고객들이 있어 제가 있는 거죠. 그들이 박수를 보내고 공감하고 감탄해 줄 때마다 옷을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취재 중 만난 한 고객은 20년도 넘는 문씨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에선 오랜 신뢰가 느껴졌다.

“행복하게도 그녀의 옷 만들기는 대를 잇고 있다. 미국에서 패션 마케팅을 전공한 딸 에스더씨가 지금은 드맹 대표를 맡고 있고 외손녀 역시 단국대에서 패션을 전공중이다.

“마침 전 수업에서 표비명에 대한이야기가 나왔는데, 전 “이 사람, 꿈꾸다 갔다” 이렇게 쓰고 싶다고 했어요.”(웃음)

드맹아트홀에서 시 수업 듣고 있는 그녀와 나눈 마지막 대화다. 그녀는 오늘도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인화가 이영란 초대전 30일까지 장덕도서관 갤러리

문인화가 이정 이영란 작가 초대전이 21일부터 30일까지 장덕도서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광산문화원이 주최하는 어등미술제 수상작가 초대전으로 이 씨는 지난해 대회에서 대상인 어등미술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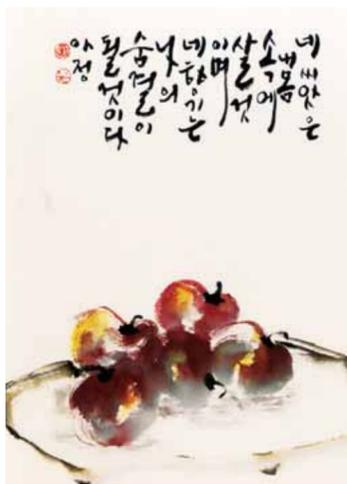
첫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 주제는 ‘사계’다. 김 씨는 각 계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포도, 모란, 연꽃 등 계절을 알리는 소품을 소재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인다.

문인화의 매력은 작가의 의도를 담은 ‘글’에 있다. 먹음직스런 사교를 소재로 한 ‘9월의 향기’에는 ‘네 씨앗은 내 몸 속에 살 것이며 네 향기는 나의 숨결이 될 것이다’는 글을 함께 담았다.

그밖에 다양한 녹색이 인상적인 다원 풍경, 소반에 가득 담긴 포도,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만날 수 있다.

김 씨는 “선조들의 정서가 담긴 문인화의 매력은 먹색 하나로 수천 수만 가지 색을 풀어내는 자유로움과 변화무쌍함”이라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서예를 접했던 김씨는 정암 이병오 선생에게서 문인화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52회 전남대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시 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등에서 특선했다.



‘9월의 향기’

현재 정목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960-398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GROUP A’ 회원전

28일까지 LH휴광갤러리

▶ 고희자 작 ‘제주의 선인장’



4년전 첫 모임을 꾸린 ‘GROUP A’(회장 모종애)는 매년 서울과 광주에서 번갈아가며 그룹전을 열고 있다. 올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에 자리한 LH휴광갤러리에서 28일까지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고희자, 모종애, 박래후, 박중수,

이기용, 신동인, 김양훈, 박경숙, 안승 등 20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고희자씨는 다양한 색깔로 표현한 제주의 선인장을 전시하며 회원들은 정물, 풍경 등 각자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토·일요일은 휴관한다. 문의 062-360-33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순천 기적의도서관 내일 ‘한일 어린이 문화 포럼’

한·일 작가 ‘위안부 할머니’ 대담도

순천시와 순천기적의 도서관이 진행하는 제3회 순천어린이 문화포럼(한·일 교류)이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천기적의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주제는 ‘어린이·도서관·그림책’으로 도쿄어린이도서관, 치히로 미술관 등 일본의 어린이 문화시설 관계자를 초청했다.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클래식 연주단 ‘뽀피소’의 그림책 콘서트에 이어 ‘아기 놀이책’으로 유명한 일본 작가 고미 타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꽃 할머니’의 권운덕 작가가 대담을 펼친다.

오후 1시 30분에는 우창수와 개똥이어린이에 술단의 공연이 펼쳐지며 ‘21세기 어린이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고미 타로

는 안찬수 책임은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고 하리카에 케이코 도쿄 어린이도서관 이사장, 타케사코 유코 아즈미노 치히로 미술관 부관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그밖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 ‘어린이가 좋아하는 어린이책’을 주제로 열리는 ‘도서관·미술관 토크’에서는 하리카에 케이코와 함께 정봉남(순천기적의 도서관장), 나옥련(순천그림책도서관장)씨가 함께 참여한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재일한국인 어린이책 작가 김환희씨의 그림 연극이다. 문의 061-749-88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이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

한가위 패키지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스탠다드룸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